

# 地方分校가 地域經濟에 미치는 영향

## —地方分校의 現況과 展望(3)—

安 京 植

(延世大 經濟學科)

### 地方分校의 現況과 展望

1. 地方分校 캠퍼스의 大學 文化 형성  
: 金永根
2. 地方分校의 實驗·實習設備에 관한 분석  
: 姜錫泰
3. 地方分校가 地域經濟에 미치는 영향  
: 安京植
4. 地方分校에 대한 地域住民의 의식  
: 金珍浩
5. 地方分校 캠퍼스 環境에의 적응  
: 金水日

### 1. 序 論

이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교)의 지방 분교의 존재가 그 지역의 경제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교육 인구의 폭발적인 수효로 인하여 국·공립대학(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교)의 설립이 급격히 팽창하였다. 더욱이 1981년의 졸업정원제도의 도입은 전체 대학생의 수자를 크게 증가시켰으며 아울러 여러 사립대학(교)의 지방 분교의 설립을 촉진하게 하였다.

시기적으로는 연세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지방 분교가 1978년 3월에 원주와 천안에 각각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모두 14개의 지방 분교가 존재하고 있다. 서울에 가까운 용인, 수원, 안성, 안산을 비롯하여 비교적 서울에서 거리가 먼 천안, 조치원, 충주 등에 각각의 지방 분교가 설립되어 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의 수원캠퍼스, 연세대학교의 원주캠퍼스, 고려대학교의 조치원캠퍼스, 경기대학교의 수원캠퍼스, 성균관대학교의 수원캠퍼스, 경희대학교의 용인캠퍼스, 외국어대학교의 용인캠퍼스, 명지대학교의 용인캠퍼스, 단국대학교의 천안캠퍼스, 상명여대의 천안캠퍼스, 중앙대학교의 안성캠퍼스, 한양대학교의 안산캠퍼스, 건국대학교의 충주캠퍼스, 동국대학교의 경주캠퍼스 등이다. 문교부 집계에 따르면 1987년 5월 현재 동국대학교의 경주캠퍼스와 서울대학교의 수원캠퍼스를 제외한 12개 지방 분교의 총 학생 수는 67,200명에 이르며 대부분이 서울 및 타지역 출신 학생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14개의 지방 분교가 있는데 그 지역 출신 학생의 수자는 매우 미미하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 분교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인 바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분교가 설립된 지역에는 각 분야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들 타지역 출신 학생의 존재는 각 해당 지역의 사회, 문화 등 여러 분

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존재는 단지 수적인 증가로 인한 소비의 증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기관으로서 학교가 설립됨으로써 지식의 확산을 비롯한 문화적·사회적 역할의 변화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지방 경제에 유입되는 새로운 활력의 영향이 각 지방 경제에 장·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조사하려 한다. 앞 부분에서는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각 해당 지방의 학생 수와 경제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뒤 부분에서는 이론적인 효과단이 일반적으로 서술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제 3장에서는 지방 분교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며 제 4장은 이를 바탕으로 통계적인 분석을 하며 결론은 마지막 장에서 도출한다.

## 2. 理論的 考察

교육과 경제 성장간의 관계 및 교육의 경제적 측면을 다루는 교육경제학은 경제 발전에 대한 교육의 기여도를 측정하여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다루는 것이 그 목적 중의 하나이다. 교육 투자란 교육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물적 수단을 생산의 투입 요소로 사용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 투자는 교육비를 일종의 투자로 보는 것이며 교육 투자의 다소는 국민의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된다.

교육 투자로 인한 결과는 사회적·개인적 이익으로서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교육 투자의 경제적 효과의 첫째는 개인이 직업에서 얻게 되는 소득의 향상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직업의 안정성이 있다. 한편 사회적인 이익으로서 첫째는 국가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를 들 수 있다. 지식과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의 생산성을 증대하여 경제 성장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둘째는 교육된 인력의 수가 많을수록 산업 구조는 고도화된다. 세계로 교육받은 결과는 소득 재분배가 절적으로 균등하게 되어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여한

다. 이밖에 비경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생산의 증대, 산업 구조의 고도화, 분배 구조의 변화,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교육의 기여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생산의 증대란 1인당 GNP가 증가하고 생산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말하며, 산업 구조의 고도화란 생산 구조의 변화로 고용 구조가 변화하고 생산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분배 구조의 변화는 소득 분배의 균등화를 이루는 것이며,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이란 소비 생활이 변화되어 여가 생활이 증대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연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단순 상관 접근법, 잔여 접근법, 수익률 접근법이 그것이다. 단순 상관 접근법은 교육 투자의 규모를 나타내는 교육 지표와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 사이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려는 데 적용된다. 두번째의 방법은 전체 국민 소득의 증가분에서 노동, 자본 등 측정 가능한 것의 투입에 기인된 국민 소득의 증가분을 제외한 잔여분(residual)을 교육을 통한 노동의 질적 향상의 결과로 간주한다. 또한 수익률 접근법은 교육 투자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시된 이론들은 일국의 경제 성장과 교육 투자간의 관계를 분석 또는 설명하는 도구들이다. 더구나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 위에 예시한 세 가지 방법들 중 마지막 두 개는 일종의 장기적인 분석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경제학에서는 노동의 질의 향상 또는 교육 투자로 인한 수익의 증가, 즉 경제 성장이 교육 투자에 의하여 단기적으로 얻어진다고보다는 교육을 인적 투자 과정으로 보는 인간 자본 이론으로 이해한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 경제 성장 이론은 지역 자원의 적정 배분을 통한 발전이 전체 국가 발전을 초래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의 효율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지역 경제의 성장은 지역내의 여러 요소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 요인이 지역 경제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 경제의 성장은 각 지역의 자원의 구성 요소가 다양하여 어느 지역이나 적용될 수 있는 성장론이나 모형은 존재하지 못한 것이 그 특색이다. 따라서 지역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론에 따라서는 신고전학과 이론, 중심지 성장 이론, 수출 기반 이론 등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 경제 성장의 원동력도 각각 다르다. 더구나 대부분의 이론들은 한 나라의 성장 모형을 그대로 응용한 단순한 모형에서 지역 성장 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신고전학과 이론에 따르면 생산 함수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지역의 성장으로 표현된 지역 성장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에 달려 있으며, 결국에는 생산 요소의 공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및 기술 수준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생산 요소들, 즉 노동력이나 자본의 이동은 한계 요소 수익율이 같아질 때까지 높은 수익율을 찾아 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저개발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요소 수익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개발 지역의 성장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누적 성장 이론도 마찬가지로 MYRDAL 이 말하는 소득의 회전 및 누적 원리에 의하여 지역 소득이 높은 지역은 구매력도 많아져서 생산 요소의 수익을 높인다는 것이다. 한 지역의 성장과 쇠퇴는 파급 효과(spread effect)와 역류 효과(backward effect)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역류 효과는 배후 지역의 사회 경제 환경의 악화로 자본, 노동력 및 수요가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모든 생산 요소가 중심지로 집중된 효과를 말한다. 미개발 지역의 역류 효과의 영향으로 자본과 노동력이 유입된 지역에서 수요의 증대로 성장 효과를 가져오는 데 이러한 성장 효과는 미개발 지역에 파급되어 이 지역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파급 효과라 한다. 따라서 이 두 효과는 상호 깊은 연관을 갖고 있어서 지역간의 불균형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이와 유사한 이론으로 집적 경제 이론과 중심지 성장 이론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도구들은 이론적으로나

실제 측정상에 있어 문제점이 야기된다. 즉 지역간의 자본 존재량, 지역간의 수출량, 각 지역의 생산량 등의 여러 가지 데이터의 완비가 선행되어야만이 이론적인 분석과 통계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기한 이론들은 공급 측면 중심적이라는 점에서 상호 유사점이 있는 반면에 수출 기반 성장 이론(export base theory) 또는 경제 기반 이론(economic base theory)은 한 지역의 성장은 그 지역 생산물의 수출 승수 효과에 의하여 파급된다고 본다. 이 효과에 의하여 증대된 지역 소득은 지역내의 관련 산업에 파급 효과를 주어 지역 경제의 성장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타지역에 판매되는 상품으로는 재화와 용역은 물론이고 지리적 편리성의 제공, 자연 및 유적지의 관광 등 타지역 주민이 지불하는 각종 수입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한 지역의 수출 활동은 단기적으로는 그 지역의 소득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경제 기반 이론을 수식으로 설명하여 보던 다음과 같다. 즉 지역 경제 성장율은 그 지역의 수출 성장율의 함수이다.

$$Y=f(X) \dots\dots\dots ①$$

지역의 소득  $Y$ 는 그 지역내에서의 소비( $E$ )와 다른 지역에서의 순수입을 뺀으로써 얻을 수 있다. 즉

$$Y=E+X-M \dots\dots\dots ②$$

$$E=eY \dots\dots\dots ③$$

$$M=mY \dots\dots\dots ④$$

여기에서  $X$ 는 지역의 수출액이고  $M$ 은 그 지역의 수입액이고  $e$ 와  $m$ 은 소비액과 수입액의 계수이다. ③과 ④식을 식 ②에 대입하면 식 ⑤가 된다.

$$Y=X/(1-e+m) \dots\dots\dots ⑤$$

식 ⑤는 한 지역의 소득과 소비는 일정한 관계에 있다는 가정하에서 지역의 소득은 그 지역의 수출과는 직접적인 비례 관계에 있다. 환언하면 지역 소득의 증가분은 지역 수출액의 증가분에 다 승수(multiplier)의 값을 곱한 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수출과 같은 외생 변수(exogenous demand)는 지역 승수(regional multiplier)를 통하여 지역 소득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생산 활동의 증가와 고용의 증대를 초래한다.

이러한 이론은 기본적인 Keynes 이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효 수요의 증대가 승수 효과를 통하여 균형 국민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한 지역의 재화나 용역의 수출 증대 효과나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내에서 지불하는 금액의 증가는 수요를 증대한다는 점에서 같은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수요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에서는 최종 수요, backward linkage, 생산 활동의 총 생산량 중심에 역점을 둔다. 즉 지역 경제 활동을 고려할 때 수요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은 생산 요소의 공급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생산 요소의 공급은 완전 탄력적이므로 지역 경제의 성장에 전혀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즉 경제 기반 이론은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지만 지역 경제 성장의 단기적 분석에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적 분석은 많은 가정을 요구한다. 제3장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선행 조건들이 구비된 다음에나 예측 가능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경제 기반 이론에서의 간단한 승수 이론을 이용하여 각 지방별로 지방 분교의 설립이 해당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설명하기로 한다.

### 3. 現 況

우리나라의 지방 분교의 역사는 1950년의 6·25 동란증부터 이미 시작하였다. 그 이후에도 지방 분교가 존재하여 왔으나 새로운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방 분교로서는 1978년 3월에 개교한 연세대학교 원주 분교와 단국대학교 천안분교가 그 처음이다. 이 두 사학 재단이 새로운 교육법에 따라 왜 처음으로 지방 분교를 설립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지방 분교가 설립될 당시의 배경은 당시 정부의 의도와 사학 재단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 분교의 설립이 각 지방의 발전이라든지 또는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같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구상된 계획하에서가 아니라 수도권 정비 계획 또는 '70년대의 대학 정원 동결 정책이 '80년대에

들어와서 정원의 대폭 완화<sup>1)</sup>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다. 특히 서울 인구의 지방 분산과 지방 인구의 서울 집중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 권에 지방 분교의 설립이 권장되었다.

- ① 청주 지역을 포함한 대전권
- ② 이리, 군산을 포함한 전주권
- ③ 구미, 경산을 포함한 대구권
- ④ 송정, 나주를 포함한 광주권
- ⑤ 진주, 창원을 포함한 마산권

그러나 실상은 문교부의 잦은 정책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지방 분교가 경기, 충청 지방에 편재되어 있으며 연세대학교의 원주캠퍼스, 동국대학교의 경주캠퍼스, 건국대학교의 충주캠퍼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의 지방 분교는 서울에서 통학이 가능한 한 시간 내외의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 대학의 지방 분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김수일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문제점들은 인적·환경적·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분류된다. 인적인 문제점들은 학생과 교수들의 문제점들이고 환경적인 문제점들은 지리적인 여건과 학습 시설에 관한 것들이다. 또한 제도적인 문제점들은 각 대학별 지방 분교에 대한 지원 및 교학 행정에 관한 문제가 포함된다.

현재 지방 분교가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를 포함하여 14군데나 되고 있다. 1979년에 경기대와 경희대학교가 수원에 지방 분교를 설립하였고 중앙대가 안성, 한양대가 안산, 동국대가 경주에 각각 설립하였다. '80년에 들어와서는 건국대가 충주, 고려대가 조치원, 한국의국어대학교가 용인에 각각 지방 분교를 설립하였다. '83년과 '85년에는 명지대와 상명여대가 각각 용인과 천안에 지방 캠퍼스를 설립하여 현재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지방 캠퍼스들 모두 13군데에 약 6만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적하고 있다.

이들 학생들의 주소별 구성 비율을 보면 1987년 현재로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는 82%, 한양대 안산캠퍼스는 75%, 명지대 용인캠퍼스는 72%, 외국어대 용인캠퍼스는 78%, 고려대의 조치원캠퍼스는 32%, 단국대학교의 천안캠퍼스는

24%이다(신동아, p. 398). 한편 비교적 통학 거리가 먼 연세대학교의 원주캠퍼스는 1985년을 기준으로 보면 10% 정도이었으나 1987년도 신입생들의 경우를 보면 67.5%로 폭발적인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김수일, p. 45). 이러한 현상은 건국대 충주캠퍼스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서울 거주 학생들의 지방 분교에의 입학은 각 지방 분교의 기숙사 설립이 전제되어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각 지방 분교의 기숙사 수용 능력을 보면 가장 나은 중앙대학교의 안성캠퍼스가 재학생 7,800명에서 2인 1실로 1,200명만을 수용하고 있으며 재학생이 2,800명인 연세대학교의 원주캠퍼스는 620명, 한양대는 8,200명 중 850명, 동국대는 5,800명 중 570명, 명지대는 5,800명 중 600명, 외국어대는 4,500명 중 270명의 수용 능력을 가진 기숙사가 있을 뿐이다. 기타 지방 분교는 대부분 이와 유사한 규모이거나 아직 건설 단계에 있다(신동아, p. 399). 따라서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근처의 민가에 하숙을 하거나 통학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방 캠퍼스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상당 수가 1주일당 강의를 3~4일에 몰아서 수강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수들도 마찬가지이다. 김수일의 연구에 의하면 지방 캠퍼스에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임 교수들은 대부분이 조교수급으로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이 일반화된 현상이다. 따라서 교수들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통근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따르는 불편 또한 적지 않다. 또한 지방 분교 전임 교수들의 학문적인 전문화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전공 분야의 심화 노력이 각 지방 분교의 학부 학생으로부터 피드백되기에는 제약 조건이 너무 많다는 이유 이외에도 각 지방 분교 자체에서의 대학원 교육의 부재 또는 서울 본교에서의 대학원 교육의 제도적인 참여의 부재, 각종 실험 실습 설비 및 기자재의 부족, 도서관 시설의 부실 내지는 부재 등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이형행의 연구(김수일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 연구 기관으로서의 기능, 사회 봉사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겸비하여야 하는

데 우리나라 대학의 지방 분교는 이 중 어느 하나의 기능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 이유는 지방 근무지로서의 특수성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인정되고 있지 않은 현실 때문이다(김수일, pp. 51~54). 이러한 사정은 각 지방 분교가 산골짜기의 외진 곳이거나 허허벌판에 있는 등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각 지방 분교의 그 지방에서의 연구 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동 연구 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입지적인 요건 때문에 대학으로서의 전문화(specialization)와 다양성(diversity) 및 산학협동(cooperation)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우수 학생의 유치는 물론이러니와 교수들의 자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이러한 현상은 김영근의 연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문화적인 면에서도 각 지방 분교가 하나의 대학으로서 자체의 독특한 문화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대부분의 지방 분교가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지방 분교의 학습 시설에서도 보여져듯이 대부분의 지방 분교의 경우 서울의 본교는 물론이러니와 지방대학교의 시설 수준에도 미흡한 경우가 태반이다. 문교부령에 따른 학교 시설 기준령에 비추어 보아도 대부분의 지방 분교의 시설은 강석태의 연구에 따르면 더욱 일천한 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문교부 기준령에 맞추기 위한 편법으로 서울의 본교의 시설까지 합산하고 있다.

제도적인 면으로는 대부분의 지방 대학에서의 교학 행정은 서울 의존적이다. 대부분의 지방 분교에는 부총장제도를 도입하여 하나의 단위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방 분교는 서울 본교의 교학 행정에 따르거나 또는 모든 과목의 개설 또한 지방으로서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서울 본교의 같은 과나 유사 과의 과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나름대로 서울 본교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위로서의 기능을 하거나 또는 각 지방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과가 증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형편은 전체 대학

생의 정원 등결 또는 인문계와 자연계의 비율 유지라는 고정 관념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기한 인적·환경적·제도적인 여러 요인들은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또는 각 지방 나름대로의 독특한 발전을 위한 각 지방 분교가 하나의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는 각 지방 분교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 교수들뿐만 아니라 소속 학생들의 해당 지방의 경제·사회 및 문화의 발전에 대한 무관심 또는 분교 컴플렉스에 의한 자기비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의 극적인 예가 1987년 5월에 있었던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의 방화 사건일 것이다. 따라서 지방 분교의 설립이 해당 각 지방에 끼치는 경제적인 효과란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교통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거나, 하숙비 또는 다방이나 유흥장에서 소비되는 자금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학생들의 등록금의 사용도 대부분의 대학이 서울 본교에서 일괄적으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의 경제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들의 지방 캠퍼스 설립이 해당 지방에 경제적으로 끼친 영향은 전무하거나 아주 미미 하리라고 보여진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각 지방의 사회 간접 자본의 형성과 기본적인 연구 시설이 완비되어 상기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어 각 지방 캠퍼스의 전임 교수들의 해당 지역에서의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적 자본의 형성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과의 산학협동을 통하여 각 지방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 4. 實證 分析

본 장에서는 제 2장에서 정립된 모델에 통계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한다. 실증 분석의 대상으로는 7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안산시, 용인군, 안성군, 천안시, 연기군, 충주시, 원주시의 지역이 선정되었다. 이 중 용인, 천안 지방을 제외한 지역들은 모두 한 지역에 하나의 대학 또는 대학교만이 존재하고 있다. 조사에 이용된

자료는 각 지역의 지역 소득, 지역 주민 수와 각 지방 분교의 학생 수가 이용되었다. 또한 기간별로는 자료의 수집이 비교적 용이한 1980년도부터 1986년까지이다. 그러나 시계열(time-series)상으로는 횡단면(cross-section)상으로는 관측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의 풀링이 필요하게 된다. 원 자료(raw data)는 부록을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자료들을 갖고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각 지역에 지방 분교가 설립됨으로써 각 지방의 소득이 증가했는가? 둘째로 소득의 증가가 있었다면 각 지역별로 동일한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모델로서는 제 2장에서 정립된 모델을 이용하였다. 이 모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Y(it) = \alpha + X(it)\beta + \mu(it)$$

$$\mu(it) \sim iid(0, \sigma) \text{ for all } i, t$$

여기서  $Y$ 는 각 지방의 소득이고  $X$ 는 각 지방 분교의 학생 수와 그 지역 주민의 비율이다. 이 모형의 가정(assumption)은 공통의 절편( $\alpha$ )과 기울기( $\beta$ )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각 지역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같으며 지방 분교 학생들의 각 지역 소득에 대한 기여도도 같다는 것이다. 더구나 오차항의  $iid$ 는 각 지역별로 소득이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간이나 각 지역내에서 오차간에는 아무런 상호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적용된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이유는 실제의 relationship이 모델에서 세운 바와는 달리 중요한 변수가 생략되어 있거나 주어진 데이터의 계측이 잘못되어 있거나 하여 auto-correlation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 상관을 감안한 추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Y = 606,299.0 + 31,269,000 X$$

$$(2.42) \quad (6.51)$$

$$RHO = .635(4.48) \quad DF = 39$$

$$RSQUARE = 0.80 \quad DW = 1.61$$

여기서  $X$ 와  $Y$ 는 각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 분교의 학생 수와 그 지역 주민의 비율과 각 지역의 소득을 표시한다. RHO는 자기 상관

계수, DF는 자유도, RSQUARE는 결정 계수, DW는 Durbin-Watson 통계량이다. regression의 결과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학생들의 각 지방에로의 유입 때문인지 알기 위해 7개 지역에 각각의 intercept를 주어 새로운 regression을 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각 지방의 소득이 자체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모델은 다음과 같다.

$$\begin{bmatrix} Y_1 \\ Y_2 \end{bmatrix} = \begin{bmatrix} I_1 & 0 & X_1 \\ 0 & I_2 & X_2 \end{bmatrix} \begin{bmatrix} \alpha_1 \\ \alpha_2 \\ \beta \end{bmatrix} + \mu \dots \text{MODEL II}$$

MODEL II에 의한 추정 결과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MODEL II에 의한 regression 결과

안산	16,124,320(4.74)	RHO=0.943(50.32)
용인	10,481,980(3.60)	DF=33
안성	6,670,316(2.65)	DW=2.23
천안	5,538,667(2.37)	RSQUARE=0.92
연기	4,166,163(1.97)	
충주	3,074,260(1.58)	
원주	2,473,851(1.35)	
X	-0.1045(1.53)	

여기서 X는 전과 동일하고 안산에서 원주까지는 각 지방에 따라 절편(intercept)을 나타낸다. 괄호 안의 수자는 t-statistics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는 안산, 용인, 안성, 천안 지방의 절편은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반면에 연기, 충주, 원주 지방은 그러하지 못하다. 또한 학생 수와 주민들의 비율인 X는 다이내믹의 부호를 보여준다. 이것은 각 지방의 소득의 증대가 지방 분교의 설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안산, 용인, 안성, 천안 지방의 소득 증대는 그 지역 자체내의 요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첫번째의 regression과는 현격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첫번째 regression에서는 X가 5% 수준에서 유의도를 갖고 있었으나 두번째 regression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세번째 regression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별 절편과 학생 대 주민의 비율을 각각 취함으로써 각각의 절편과 기울기가 다

른가를 테스트한다.

$$\begin{bmatrix} Y_1 \\ Y_2 \end{bmatrix} = \begin{bmatrix} I_1 & 0 & X_1 & 0 \\ 0 & I_2 & 0 & X_2 \end{bmatrix} \begin{bmatrix} \alpha_1 \\ \alpha_2 \\ \beta_1 \\ \beta_2 \end{bmatrix} + \mu \dots \text{MODEL III}$$

그 regression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모델 III의 regression 결과

	INTERCEPTS( $\alpha$ 's)	BETAS( $\beta$ 's)
안산	10,033,630(8.12)	-42,278,580(-3.35)
용인	836,903.5(1.67)	36,339,500(4.58)
안성	761,764.0(1.79)	19,266,920(1.20)
천안	607,282.8(1.57)	24,190,460(2.40)
연기	679,103.7(1.91)	24,340,840(1.57)
충주	875,659.4(2.30)	9,253,323(0.44)
원주	756,864.9(2.28)	31,772,320(1.11)

RHO=0.62 DF=27  
RSQUARE=0.957 DW=2.23

세번째 regression의 결과는 먼저 기울기(slope)를 보면 안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의 부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용인과 천안의 경우만이 5%의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다. 반면에 절편(intercepts)의 값을 살펴 보면 안산, 충주, 원주만이 5% 수준에서 유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MODEL II와 MODEL III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용인과 천안만이 지방 분교의 설립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용인에는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명지대학교의 세 대학교가 있어 그 수가 상당히 높고 천안에는 단국대학교와 상명여자대학교가 있어 각 지역의 전체 주민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X변수가 지방 분교 학생 수 대 지역 주민의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각 지방 분교의 학생들이 1인당 일정액을 소비하면 그 승수 효과로 인하여 상기 표들에 보여진 계수(coefficients)만큼의 소득 증대를 시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생 수 대 주민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의 증가가 상기 표들에 보여진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운 소재 사립대학교의 지방 분교 설립으로 인하여 각 지방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상기의 표들이나 제 2장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지방 분교 대학생들이 대부분 소비하는 자금은 하숙비 또는 유희비 및 교통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혜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5. 結 論

우리나라에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의 지방 분교가 신교육법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연세대학교 원주분교와 단국대학교의 천안분교가 그 처음이다. 그후 여러 해에 걸쳐 13개 사립대학교의 지방 분교가 설립되었다. 1987년 5월 현재 이들 지방 분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자는 67,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학생들의 여러 가지 애환은 각종 언론 기관을 통하여 상세히 보도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교의 지방 분교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서 지방 분교의 설립이 각 지방에 어떠한 경제적인 활성화를 초래하였는가를 조사·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의 대상으로는 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7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각 지방 분교의 실정은 많은 언론 기관에서

이미 보도된 바와 같고 또한 김수일의 연구에서도 보여진 바와 같이 지방 분교의 교수진, 학생 및 각종 시설은 제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은 물론 이터니와 전임 교수들도 각자가 소속한 대학이 위치한 지방의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한 제반 문제에 관심이 깃들여질 수 없다.

이러한 事前的(a priori)인 견해를 갖고 통계적인 조사를 해 본 결과는 상호 어느 정도 일치하였다. 단지 용인, 천안의 경우 그 결과가 유의성이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자료의 보완이 이루어진 이후 좀더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계 자료의 보완이 이루어진 후 조사가 되어야 더욱 확실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겠지만 각 지방 분교가 지역 사회에서 상호적인 보완 관계를 이루려면 다음과 같은 임의적인(tentative)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각 지방 분교는 규모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하나의 단위(unit)로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하여는 각 대학의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시설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

## 〈附 錄〉

(단위: 원)

지역 연도	안 산	용 인	안 성	천 안	연 기	총 주	원 주
1980	2,362,339 (3,500)	1,422,557 (1,927)	877,069 (900)	875,201 (1,310)	754,417 (400)	770,079 (400)	897,703 (200)
1981	2,608,007 (5,080)	1,688,522 (3,880)	1,528,381 (1,800)	1,281,291 (2,660)	852,514 (910)	998,373 (1,100)	829,413 (750)
1982	2,668,428 (7,238)	1,858,731 (6,000)	999,494 (2,800)	1,512,458 (3,920)	947,985 (1,560)	1,311,902 (1,800)	1,034,833 (767)
1983	3,378,031 (9,000)	2,376,103 (7,800)	1,128,250 (3,400)	1,588,825 (5,180)	846,976 (2,320)	869,833 (2,500)	1,095,499 (1,300)
1984	4,955,677 (9,792)	3,495,191 (10,440)	1,203,633 (3,665)	1,921,599 (6,660)	1,511,188 (2,680)	1,000,988 (3,000)	1,469,207 (1,950)
1985	5,603,957 (9,904)	3,605,216 (11,560)	1,488,788 (4,330)	1,562,497 (6,880)	1,432,184 (3,040)	1,226,381 (2,200)	1,281,756 (2,560)

\* 괄호 안은 학생 정원